

# “수행하듯 일하고 일하듯 수행한다”

‘일터’, 현대인에게 있어 직장은 가정에 버금가는 공동체다. 직장·직능불교 수행 운동은 90년대 ‘재가불교 운동’의 흐름에 동참하며, 불교의 생활화·대중화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행패턴도 바뀌고 있다. 사찰 중심의 수행 활동이 직장, 동일 직장, 지

## 네가 일하는 곳을 불국토로



◆불자로 다시 태어난다. 직장불자들은 직장내 강당에서 수계법회를 병행하는 등 ‘일터’를 불국토로 가꿔가고 있다.



◆대한민국경찰불교회원들은 계급, 나이를 초월해 ‘합장인사하기’를 생활화하고 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일터에서 보내는 직장인들. 이들은 꿈을 꾀고 업무와 관련된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한다. 그야말로 직장생활이 삶의 전부인 셈. 갈등도 수없이 빚어진다. 대인관계, 과도한 업무량 등 직장은 회의와 좌절감도 맛보는 곳이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발표한 <직장생활에 대한 노동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좋은 동료로 묻는 질문에 응답자 60.7%가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동료’라고 꼽았다. 반면 ‘자기 일을 잘 해내는 능력 있는 동료’라고 답한 사람은 불과 18.4%에 그쳤다.

이 같은 인식이야말로 직장불자회 수행의 필요성을

역별 연합단체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일터를 불국토로 가꿔가고 있을까? 삶의 현장에서 불심을 일구는 불자들, ‘일터 불심’들이 꽃피우고 있는 수행상을 들여보려다.

## 업무특성따라 ‘보살담기’ 운동

### 보안 불상·보살이름 따 단체명 짓기 신행 대중·생활화... 포교사 역할까지

대변한다. 직장불자회 활동은 고민상담의 창구 역할과 인간관계에 각종 윤희유 역할을 담당하는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일터가 곧 수행터’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기류를 타고 최근 직장불자회들은 일터 특성에 따라 ‘보살 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은 각 직장의 여건에 따른 수행의 특성을 살려내는 효과를 얻고 있다. 보살상 봉안, 단체명을 보살 이름으로 짓기 등 행기도 다양하다. 전국불교정인연합회는 직장보살의 증생구제 원력을, 불자법조인의 모인인 서초반야회는 문수보살의 지혜를, 선재마을의료회와 불자약사보리회 등은 약사보살의 자비행을 수행의 좌표로 정립

하고 있다.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지회의 경우, 재소자 교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지장신앙을 수행의 중심에 두고 있다. 수원교도소와 여주교도소 등은 지난 2001, 1999년에 각각 재소자 운동장에 지장보살상을 봉안해 불자 재소자·교도관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까지도 마음의 위안처로 삼고 있다.

여주교도소 불심회 어윤식 회장은 “불자교정인으로서 지장보살을 닮으려는 것은 업무 수행의 길잡이가 된다”며 “일터불심이 직무 특성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직장불자회의 ‘보살 담기’ 지향은 직장 특성을 살린 수행상 확립과 함께 회원들의 직무 수행 방식을 불교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직장을 불국토로 만들려는 일터 불심의 노력은 직장의 담장도 넘고 있다. 직장에서의 수행이 가정·사회의 화목을 이끄는 중요한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 직장불자회는 보다 다양한 회원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수행의 깊이를 더해가기 위한 ‘법회 내실다지기’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현실에 반영되어, 일터 불심들은 직장도 가정도 사회도 불국토로 가꿔가고 있다.

전국경찰불교회 김진홍 사무국장은 “내 근무지가 바로 부처님의 정법이 있는 곳이다. 일터는 수행과 수행의 장소인 동시에 자아실현의 장”이라며 “나와의 관계, 이치, 도리 등을 잘 관찰하는 생활수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불자CEO들이 좋아하는 법구

산업현장을 누비고 있는 불자 CEO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들은 부처님의 어떤 말씀을 자신의 등불로 삼고 있을까? 불자 CEO들이 가슴에 새기고 사는 법구를 들여보려다.

##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뤄진다



최종욱(마크애니 대표)

디지털 문서 보안 전문 벤처기업 마크애니 대표 최종욱 씨. 보안 업체를 주름잡고 있는 최 대표의 불교인연은 누이들의 영향이 지대했다. 경남 내원사 주지를 거친 자광 스님이 둘째 누이가 되고, 막내 누이는 수행자의 삶의 삶다 열반했다. 최 대표는 지난 1973년 영천 은해사에서 회향한 21일간의 하루 3번기도가 부처님의 법을 더 사무치게 했다고 말했다. 그때, 정진을 하면서 최 대표는 이 법구 한 구절을 가슴에 새겼다고 한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 된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들 따른다. 그림자가 그 형체를 따르듯이.” <법구경>

## 보시공덕으로 세상에 필요한 사람



강인성(진양엔터프라이즈 대표)

<법화경 보현보살품>에서 얻은 교훈이 강인성 진양엔터프라이즈 대표의 좌우명이다.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한 불자들의 자세를 설명한 법구다. 강 대표는 이 법구가 불자가 갖춰야 할 4대 덕목이라고 말했다. “모든 이에게 필요한 사람, 보시 공덕을 짓는 사람, 자신의 단점을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넓은 도량을 가진 사람, 중생을 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강 대표는 대학 시절 건국대 이준 교수의 지도로 불교에 입문했고, 지금은 초발심과 평상심을 어떻게 잘 가꾸고, 좋은 결실을 맺을지 등을 화두로 삼고 수행활동을 하고 있다.

## ‘자비’라는 열쇠 행복의 문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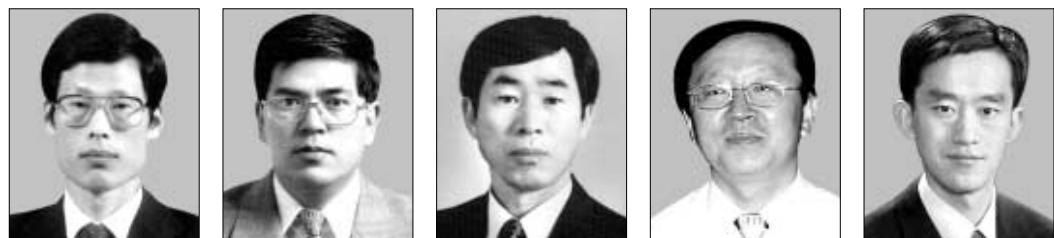


조상문(네오텔레콤 사장)

“자비심의 중요한 밑거름은 다른 이들에게 의식을 나눠주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자비행위만으로는 온전한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 진정한 자비심은 물질적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달라이라마의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의 한 구절, 한국 최고 통신장비 전문 기업 네오텔레콤 조상문 사장은 이 구절에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깨닫고 있다고 말한다. 경영철학도 ‘남모르게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강조하는 조 사장은 어머니가 100일 기도 끝에 태어났다고 해서, 불교를 ‘운명 이상의 무엇’이라고 믿는다. 때문에 조 사장은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고 사는 불제자라고 싱글변글 한다.

김철우 기자



## 직장을 정토로 가꾸는 사람들

서부터 법회 집전까지 손수 맡는 등 불자회의 호법신장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현회 강인준(51)씨와 한전본사 반야회 이순형 씨(55) 등은 숨은 동료이다. 이들은 동료나

제각기 다른 직장에서 수행활동을 벌이고 있는 직장 불자들. 이들은 어떻게 일터를 정토로 일구고 있을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사무국장 안홍부 씨(57·감사원). 그는 공무원 불자들 세계에서 ‘귀신’으로 통한다. 지방 출장이 잦은 업무 특성상 출장기관의 불자들을 꼭꼭 지켜봐 찾아낸다고 해서 불어린 애정이다.

감사원불자회 창립을 이끈 안 국장. 지난 2000년 정부부처와 전국경찰 불교회가 참여한 공불련 창립을 주도, 직장불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안 국장은 행사 기획은 물론 준비, 뒤처리 등을 도맡으며 직장불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일터가 법당인 사람도 있다. 국립서울법원 양동선(45·치과과장) 씨.

안홍부씨 공불련 창립주도...직장불자회 새바람

양동선씨 신행상담서 집전까지...불자회 호법신장

5년 전 편도암 진단을 받고 기사화상한 뒤, 그가 일하는 병원은 자비의 숲을 실천하는 전법의 장이 됐다. 양과장은 또 신입회원의 수행상담에

상사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전법의 사명감을 갖고 사는 불자다. 강씨는 법무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과천정부청사 내

불자회 창립 지원뿐 아니라, 과천청사 공무원불자연합회 결성에 실무로 도맡았다. 이씨(55)는 반야회 창립 멤버로, 불서 선물을 통한 포교활동으로 반야회 식구들을 늘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사이버 포교사도 있다. 소비자보호원 법우회 김종관(37) 총무는 요즘 직장불자회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대화 채널 방식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김 총무는 최근 회원들의 근황과 함께, 활발한 의견 개진의 장을 마련, 의사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 가족을 부처님처럼...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 용 주 사

주 지 정락  
총무국장 성 호  
기획국장 원 오  
교무국장 성 무  
재무국장 성 직  
사회국장 응 진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188  
TEL 031)234-0040, 222-7891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 고 운 사

주 지 혜 승

사부대중일동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거리 116번지  
TEL 054)833-2324

대한불교조계종

## 사회복지인 능인선원

주 지 지 광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  
대한불교조계종 국녕사  
대한불교조계종 등룡사

신 도 일 동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55번지  
TEL 02)577-5800  
FAX 02)577-0052

대한불교조계종

## 기 원 사

원 장 지연  
신도회장 정각지  
부부법회 회장 월광

서울 노원구 월계동 392-106  
전화 02)918-0034 / 팩스 02)919-0995

사단법인 한국꽃꽂이 협회  
보림꽃예술중앙회  
불교 꽃꽂이 연구소

회 장 보림 지연

서울 노원구 월계동 392-106  
전화 02)919-0034 / 팩스 02)919-0995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 수원포교당

주 지 성관  
선원장 금산  
총 무 도현  
도 감 덕안  
교 무 산성  
기획국장 실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92-1  
TEL 031)245-7048